

2017 | 7 July
vol.204



소리로 보는 세상



시선집중

시각장애인 직업재활의 변화를 바라며

테마기획

시각장애인은 가전제품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인 터 뷰

2017년 KBS 창작동요대회 대상곡 작사가 오서영 학생

포 커 스

캠코, 시각장애인 오디오북 시즌3
'마음으로 듣는 소리' 출판기념회



02 | 목차

03 | 점자로 말해요 - 여행

04 | 시선집중 - 시각장애인 직업재활의 변화를 바라며 / 문성준(대전맹학교 교사)

06 | 테마기획 - 시각장애인은 가전제품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08 | 인터뷰 - 2017년 KBS 창작동요대회 대상곡 작사가 오서영 학생

10 | 포커스 - 캠프, 시각장애인 오디오북 시즌3 '마음으로 듣는 소리' 출판기념회

12 | 함께 사는 이야기 - 강아지와 나 / 이성희(시각1급_서울특별시 은평구)

13 | 월드 리포트 - 베이징, 시각장애인 스마트폰 앱 훈련반 개설 - 미국 항공사, 흑인 시각장애인 탑승 거부

14 | 뉴스앨범 - 마음과 손끝으로 여행하는 국가지질공원 - 제8회 시각장애여성지도자 연수 성황리에 마쳐 - 시각장애인 정보격차해소 운동본부출정식 가져 - 2017년 전국심화재활교육-지도자과정 실시

16 | 시각장애인을 만나면 - 백화점이나 대형할인점 등에서 쇼핑을 할 때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었습니다.
휴가철에는 많은 사람들이 국내로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데요.

여행은 점자로 어떻게 나타낼까요?



① ④
② ⑤
③ ⑥

점자 일람표															
자음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된소리
받침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ㅙ	ㅚ	ㅜ	ㅠ	ㅓ	ㅛ	ㅜ	ㅠ	ㅞ	ㅟ	ㅠ	ㅡ	ㅢ		
약자	가	나	다	마	바	사	자	카	타	파	하	억	언	얼	연
	열	영	옥	온	웅	운	울	은	을	인	것	쌌	받침		
약어	그래서		그러나		그러면		그러므로		그런데		그리고		그리하여		
숫자	수표	1	2	3	4	5	6	7	8	9	0				
문장부호	.	?	!	,	-	~	.	"	"						
	:	:	줄임표 (...)												
영어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영어시작	끝	대문자	

[나, 다, 마, 바, 자, 카, 타, 파, 히] 약자뒤에 모음이 이어질 때는 약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 [ㅅ, ㅈ, ㅊ, ㅍ, ㅆ] 다음에 약자 '영'이 올때는 'ㅇ'으로 바뀐다.



시각장애인 직업재활의 변화를 바라며

문성준(대전맹학교 교사)

홀 여사가 평양에서 시각장애 학생을 교육함으로써 우리나라 근대적 특수교육의 토대를 마련하고, 제생원을 통한 이료교육이 시작된 지 1세기가 넘는 장구한 시간이 흘렀다. 어려운 장애인 복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전 세계에서 시각장애인만을 위해 독점적인 직종을 국가가 부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그동안 맹학교를 중심으로 한 이료교육과 안마사 자격증 취득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은 직업 재활과 생업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각장애 안마업은 반복되는 헌법 소원과 불법 마사지업의 업권 침탈, 업종 형태의 변화 흐름 등으로 갈수록 위기에 내몰리고 있으며, 시각장애 학생의 재활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맹학교 현장의 역할과 책무가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가운데 필자는 최근 일부 맹학교를 중심으로 시도되고 있는 청소년 비즈쿨 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이를 통한 시각장애 직업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 비즈쿨이란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교육을 통해 꿈·끼·도전정신·진취성을 갖춘 '융합형 창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2002년부터 중소기업청이 일선학교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해 오고 있으며, 비즈쿨이란 Business+School의 합성어로서 “학교에서 경영을 배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본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창업·경제교육, 창업동아리, 전문가 특강 지원 등 비즈쿨 지정·운영, 둘째, 체험을 통한 기업가적 마인드 함양, 창업실무지식 습득을 위한 비즈쿨 캠프 실시, 셋째, 비즈쿨 페스티벌, 교재·콘텐츠 개발, 담당교사 연수 등 학교 내 인프라 구축 등을 들 수 있다.

그렇다면 시각장애 교육 현장에서 비즈쿨 운영은 어떤 의미가 있으며, 향후 시각장애 직업재활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선 시각장애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진로 교육이 가능하다. 그동안 맹학교 이료교육의 중점은 실력을 갖춘 이료인 양성에 역점을 두고 있었다. 그러다보니 창업과 경영에 바탕이 되는 기본 자질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가 정신, 경제 마인드 함양은 물론 성공적인 경영 마케팅과 이미지 메이킹 등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일 여력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보니 경쟁과 자본이 중심을 이루는 시장경제에서 우리 학생들이 졸업 후 성공적인 창업과 경영을 하기란 하늘의 별따기와도 같은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청소년 비즈쿨은 시각장애 학생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과 수업 장면에서 알아야 할 경제교육을 학습하는 데 매우 유용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청소년 비즈쿨 사업에서는 의무적으로 일정 시간 이상의 창업 관련 교육과 전문가 특강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비즈쿨 사업을 통해 새로운 직업 모델 창출에 대한 도전과 용기를 북돋을 수 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청소년 비즈쿨 사업 공모에 선정된 학교를 대상으로 단계에 따라 각각 최소 500만원에서부터 1,500만원에 이르기까지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학교에서는 학생들과 함께 새로운 직업에 대한 탐색과 콘텐츠 개발에 나설 수 있다. 실제로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비즈쿨 학교에 선정된 대전의 한 맹학교는 고등학교와 전공과 학생을 대상으로 안마 심화교육과 함께 저시력 학생을 중심으로 한 바리스타반 운영, 건강식품 탐색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도 중복장애 학생을 위해서도 다양한 진로 직업 모델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있다. 또한 정기적으로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 방문 등 다양한 현장체험을 통해 기업가 정신 함양에도 나서고 있다.

그밖에도 비즈쿨 사업에서는 교사의 창업과 경제교육에 대한 전문성 함양을 위한 각종 실무 연수와 캠프 운영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 맹학교는 저시력 학생의 증가에 따른 통합교육의 확대, 중복장애 학생의 증가, 맹학교 교실 공동화, 중도 실명인의 교육적 요구 증대 등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기로에 서 있다. 그럼에도 맹학교가 과거 전통적인 이료교육 중심의 직업 교육과정 운영만을 고집한다면 시각장애인 재활에서도 소외될 뿐 아니라 장차 맹학교의 존폐 문제에까지 놓일 수밖에 없다.

매스컴에서는 연일 제4차 산업혁명과 미래 산업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모색하는 목소리가 뜨겁다. 그러한 사회적 요구는 특수교육과 시각장애 교육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미래 산업과 시각장애인의 직업 재활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시각장애인계의 노력을 기대해 본다.

시각장애인은 가전제품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냉장고, 밥솥 등 매일 사용하는 다양한 가전제품,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 방법을 익히시나요?



커피포트나 드라이기와 같은 소형 가전제품부터 냉장고, 세탁기 등 대형 가전제품
까지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가전제품에는 사용 설명서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우리
는 이 사용 설명서를 통해 가전제품의 세부 사용 방법을 알 수 있는데요. 글자로
쓰여진 사용 설명서를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은 어떻게 가전제품의 사용 방법을
익힐 수 있을까요?

세상에는 많은 가전제품이 있지만 현재 점자로 된 가전제품 설명서를 찾아보기는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각장애인들은 가전제품 구입 시 활동보조인과 같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가전제품의 사용 방법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가전제품을 구입한 업체로부터 설명서의 내용이 담긴 PDF 파일을 받아 화면낭독 프로그램으로 사용 방법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는 방법도 있지만 컴퓨터 활용이 어려울 수 있는 시각장애인에게는 이조차 무용지물입니다.

현재 국내의 가전제품을 비롯한 다양한 품목들에 점자설명서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점자를 통해 정보를 습득해야 하는 시각장애인들은 어떤 제품을 사더라도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을 알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가전제품에 점자설명서를 함께 제공하는 현재 추진되고 있지는 않으나 만약 이와 관련하여 시각장애인들의 민원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보겠다”고 밝혔는데요.

추후 시각장애인들이 누구의 도움없이 스스로 점자 사용 설명서를 통해 가전제품의 사용 방법을 익힐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2017년 KBS 창작동요대회 대상곡 작사가 오서영 학생

‘서로의 별이 되어’

2017년 KBS 창작동요대회 대상 수상곡인데요.

이 곡을 작사한 오서영 학생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한빛맹학교 고등부 2학년에 재학 중인 오서영입니다. 글과 음악을 좋아하고, 초등학교 시절부터 작가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번 2017 KBS 창작동요대회에서 오서영 학생이 작사한 ‘서로의 별이 되어’가 대상을 수상했는데요. 동요 작사를 하게 된 계기는 어떤 건가요?

올해 2월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의지하고 좋아하는 친구와의 우정을 생각하면서 글을 쓰게 되었고 그 글을 KBS 홈페이지의 노랫말을 접수할 수 있는 공간에 올렸는데, 글을 좋게 봐주신 분들께서 제 글에 멜로디를 입혀 주셨습니다.

혹시 ‘서로의 별이 되어’가 대상을 수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셨었나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제가 KBS 홈페이지에 올린 노랫말이 총 2개였는데 제가 괜찮다고 생각한 글은 선정되지 못했거든요. ‘서로의 별이 되어’로 연락이 왔을 때에 제가 쓴 노랫말에 곡이 붙여질 수 있다는 그 자체에 설레는 마음이 들었지만 다른 훌륭한 곡들이 많아 대상을 수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동요 외에도 관심 있는 분야는 어떤 것인지, 다른 글쓰기 분야의 활약 등은 무엇이 있을까요?

동화, 수필, 소설 등 다양한 종류의 문학작품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특별히 어느 쪽에 관심이 많다고 얘기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요즘에는 짧은 글에 많은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시에 매력을 느껴 시를 많이 쓰는



편입니다.
사실 작사는 처음이 아닌데요. 좀 더 어렸을 때부터 취미로 노랫말을 많이 썼었는데 2016년에는 평택노을동요제에서 ‘햇살이 되어주세요’로 고운노래상을 받았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숙명여고 문학상 백일장에 나갔었는데 운 좋게도 장려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글을 쓰는 데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어려움을 이야기하자면 아무래도 사회적인 인식과 편견일 것 같아요. 제가 쓴 글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쓴 글이 시각장애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쓴 글이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통 사람이라면 모두가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을 담고 있다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진로에 있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싶은데 어느 분께 조언을 받을 수 있을지,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알지 못해 진로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Z또 독서를 좋아하고 흥미가 있지만 신간 도서의 경우에는 음성이나 전자도서로 제작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찾아 읽는 것도 힘든 상황이고요.

이 외에도 학생은 점자정보단말기를 학교에서 대여해주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는 보급 사업에 선정되기 어려운데, 점자정보단말기를 학교에서 대여해주는 것은 하지만 잦은 고장 등의 문제로 독서나 글을 쓰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차츰 해결되어 시각장애인도 다양한 꿈을 꾸고 자유롭게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캠코, 시각장애인 오디오북 시즌3 ‘마음으로 듣는 소리’ 출판기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디오북 시즌3 ‘마음으로 듣는 소리’ 출판기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날 행사에는 시각장애인 20여명과 함께 캠코 문창용 사장,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이병돈 회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효진 사업본부장, 오디오북 낭독을 지도한 서혜정 성우와 목소리 재능 기부자 등이 오디오북 출판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했는데요.

이번 출판기념회에서는 목소리 재능기부에 직접 참여한 가수 옥상달빛의 음악공연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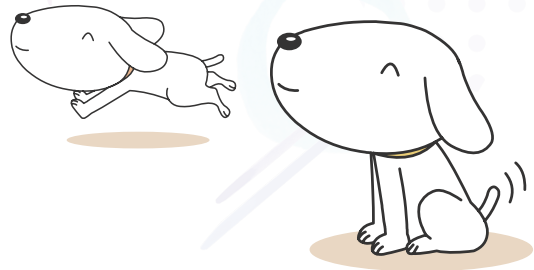
이번에 출판되는 오디오북 시즌3 ‘마음으로 듣는 소리’는 경제·법률 도서부터 아동들이 좋아하는 위인전, 과학만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로 구성되었는데요.

제작된 오디오북은 전국 맹학교, 점자도서관, 장애인단체 등 200여 곳에 무료로 배포되며 시각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PC와 모바일을 통한 ‘책 읽어주는 도서관(voice.lg.or.kr)’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올해 진행될 예정인 ‘마음으로 듣는 소리’ 시즌4는 시각장애인 수요조사를 통해 오디오북으로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역사와 육아, 요리, 에세이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도서 중심으로 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강아지와 나

이성희(시각1급_서울특별시 은평구)



토요일 이른 아침이었다. 약속이 있어 내가 사는 아파트 등의 출입문을 열고 나서는데 강아지 한 마리가 눈에 들어왔다. 털이 복슬복슬해서 다리가 좀 짧아 보이는 하얀색 강아지였다. 강아지는 단지 내 차도를 졸랑졸랑 건너가더니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 조정 풀밭에서 냄새를 맡기도 하고 영역을 표시하기도 하면서 자기의 일에 몰두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내가 가야 하는 방향이 그 강아지가 있는 곳의 방향이라 강아지 쪽으로 다가가면서 주인은 어떤 사람일까 하며 강아지가 걸어오던 방향으로 잠깐 시선을 돌렸다.

아무도 없었다. 설마 싶어 가던 걸음의 속도를 늦춰 걸으면서 강아지가 걸어 왔던 방향을 더 살펴보았지만 인기척이 없었다.

강아지가 길을 잃었나? 그렇게 지저분해 보이지는 않은데? 아까까지 강아지가 풀밭에서 하던 행동을 보면서 내 마음은 그저 평안했는데 여전히 코를 땅바닥에 대고 냄새를 맡으면서 요리조리 왔다 갔다 하는 강아지를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면서 바라보는 그 마음이 이제는 편치가 않았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다. 내가 그 강아지의 삶에 어떤 개입을 해야 하는 건지, 만약 개입을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건지. 난감했다.

강아지와 나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제 강아지와 나의 거리는 산책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정도였다. 그 강아지가 뭔가 분주하게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그 풀밭은 산책로 저쪽 가 쪽에 있었는데 난 그 산책로를 통해서 가야 했다. 그 산책로로 접어드는 곳까지 거의 다다랐다. 강아지는 여전히 자기의 일에 빠져 있었다.

일단 강아지가 나의 인기척을 느끼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쪽을 더 이상 쳐다보지 않고 산책로에 접어들면서 왼쪽으로 시선을 돌려 길을 걸었다. 아무래도 내가 너무 앞서서 강아지 상황을 좋지 않은 방향으로 여기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가 걷고 있는 산책로의 끝은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는 길이다. 상가들이 늘어서 있고 차도가 나 있었다. 강아지를 보고 있지 않으니 아까보다는 마음이 좀 나은 것 같았다. 약속 시간이 빠듯하기도 해서 걸음의 속도를 좀 높여서 걸었다.

산책로 끝 부분에 거의 다다랐을 즈음 내 오른쪽으로 하얀 강아지가 나를 앞서고 있는 것이 보였다. 아까 그 강아지였다. 하릴없이 난 그 강아지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었다. 강아지가 산책로 끝 부분으로 종종중 걸어가더니 잠시 멈춰 섰다. 산책로 끝은 차도와 바로 연해 있었고 그 차도는 삼거리였다. 오른쪽으로 가면 음식점들이 늘어서 있는 상가 길이고, 직진하면 버스가 지나다니는 큰 길이다. 왼쪽 길은 다시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길이다.

강아지는 거기서 잠시 서서 고개를 들어 이쪽저쪽을 살피더니 아파트 단지가 있는 쪽으로 걸어갔다. 정말 주인을 잃은 걸까. 멈추지 않고 어느 한 방향으로 거침없이 걸어갔더라면 이런 생각까지 들지 않았을 텐데.

내 궁상맞은 생각일지는 몰라도 내가 보기에는 분명 망설이다가 그냥 정한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였다. 강아지가 걸어간 방향은 내가 가야 하는 길과는 반대 방향이었다. 귀에 꽂은 이어폰의 볼륨을 더 높였다.

노래를 들으면서 전철역을 향해 걸어가는데, 저 앞쪽에 하얀색 강아지가 또 보이는 것이 아닌가. 정말 이게 무슨 인연일까 하는 생각이 들기까지 했다. 그 강아지는 골목 모퉁이의 풀밭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가까이 가면서 보니 목줄이 보였고, 골목 안쪽에서 이내 강아지의 주인이 목줄을 손에 쥔 채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나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주인과 함께 있는 강아지를 보니 아까 그 강아지가 산책로 끝에서 잠시 멈춰 섰다가 아파트 단지 방향으로 종종중 걸어갔던 뒷모습이 떠올랐다. 조금 아렸다.

베이징, 시각장애인 스마트폰 앱 훈련반 개설 스마트폰 앱을 이용, 일상 생활의 편리함에 큰 힘 ...

지난 6월 6일, 베이징에 위치한 시각장애인 서비스센터에서 100여 명의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스마트폰 앱 사용 훈련반을 개설했습니다. 중국의 시각장애인들은 자신의 스마트폰에 시각장애인 전용 앱을 설치하면 터치 등의 방식으로 음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시각장애인들은 본 음성 서비스를 이용해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번 훈련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전화 걸기 및 받기, 문자 확인 및 발송, 택시 앱 사용 방법 등 기본적인 활동에 필요한 앱 사용법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중국인들은 훈련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은 스마트폰 앱을 이용, 외출하지 않고도 각종 생활에 드는 비용을 납부할 수 있게 되었고, 음식 주문, 택시 예약, 통화, 병원 예약 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 항공사, 흑인 시각장애인 탑승 거부 시각장애인은 골칫거리라고 말하며 ...



미국의 저가 항공사 프런티어항공이 어린 소녀와 동행한 흑인 시각장애인 할아버지의 항공기 탑승을 거부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6월 2일 미국 플로리다 지역신문 탬파베이타임스에 따르면 흑인 남성 클립턴 밀러(44)는 18개월 된 소녀와 함께 플로리다주 탬파 국제공항에서 라스베이거스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다 항공사로부터 제지를 당했는데요, 밀러는 당시 상황에 대해 “그들은 나를 골칫거리라고 말하며

내가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나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일로 인해 밀러는 결국 항공기에 오르지 못하고 항공권을 전액 환불받았으며,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미국 교통당국에 민원을 제기했고 며칠 뒤 프런티어항공 고객 서비스 담당자가 전화로 그에게 사과했습니다.

이후 프런티어항공은 밀러의 라스베이거스행 항공티켓을 무료로 제공했고, 사건 발생 이틀 후 밀러는 소녀와 라스베이거스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NEWS

마음과 손끝으로 여행하는 국가지질 공원

지난 6월 10일 연천군과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주최로 연합회 회원 등 시각장애인 53명과 자원봉사자 등 총 95명은 연천군 지질명소 탐방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탐방은 평소 혼자서 외출이 자유롭지 못한 시각장애인과 이웃이 함께 한다는 의미로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적으로도 아름다운 곳에서 교육 관광의 활용 가치가 큰 지질공원을 견학해보는 것이 목적이었는데요.

이 날 함께 참여한 이병돈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은 “처음에 전국지부에 참여자를 모집할 때 사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여할까 의구심이 들었는데 홈페이지 게시 단 몇 시간 만에 모집인원이 마감돼 상당히 놀랐다”면서 국가지질공원사무국 및 연천군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제8회 시각장애여성지도자 연수 성황리에 마쳐

지난 6월 15일부터 16일, 1박 2일 동안 충청북도 단양에 위치한 대명리조트에서 제8회 시각장애여성 지도자연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연수에서는 참여자 상호간의 화합과 소통, 정보교류를 통해 시각장애여성의 권익을 향상하고 시각장애여성지도자가 지역사회의 리더로서 성장 및 발전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교육, 정책 및 민원 등을 나누는 간담회 프로그램 등이 마련되었는데요. 특히 간담회 시간에는 여성리더의 역할에 대한 의견 개진 및 관련 정책에 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시각장애인 정보격차해소 운동본부출정식 가져

지난 6월 2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2층 교육실에서 정보격차해소 운동본부가 출정식을 갖고 공식 출범을 선언했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이병돈 회장, 한국장애인재단 서인환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출정식은 시각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나서 정보접근의 격차 해소를 요구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출범하게 되었는데요.

축사에 나선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중앙회 이병돈 회장은 “장차법이 시행된 지도 어언 10년이 다 되어가는 때인데 다소 늦긴 했지만 이제라도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에 대한 인식과 욕구가 높아지고 이 때를 맞춰서 정보격차해소운동본부가 출범을 하게 돼서 기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2017년 전국심화재활교육-지도자과정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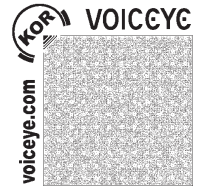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6월 29일 목요일부터 1박 2일간 보령의 비체펠리스에서 “2017년 전국심화재활교육(지도자과정)”을 진행했습니다.

본 연수는 한시련 지부장 및 지회장, 센터장을 포함하여 약 400명이 참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상호 교류를 통해 시각장애지도자로서의 전문성을 배양하기 위해 진행되었는데요.

이번 전국심화재활교육을 통해 참가자들은 전국의 시·도·군별 복지 수준 비교, 현안 공유 및 대안 모색을 통해 지역 간 회원들의 복지 증진 및 장애인 복지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백화점이나 대형할인점 등에서 쇼핑을 할 때



시각장애인들에게도 쇼핑은 단순히 생필품 구입에서 그치는 것뿐만 아니라 기분전환과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일상 활동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요즘은 가격파괴와 심야영업 시간 등으로 쇼핑의 다양성을 꾀하는 대형할인점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대형할인점은 물건이 다양하고 가격이 싼 반면에 구매를 도와주는 점원이 별도로 없어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혼자서 쇼핑하기가 힘듭니다. 만약 혼자 쇼핑을 하는 시각장애인을 만나면 시각장애인이 구입하려는 품목에 대해 간략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동일 품목에 여러가지를 비교할 수 있을 때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 후원안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전국 50만 시각장애인의 복리향상과 권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각장애인 단체입니다. 후원자의 정성된 사랑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소중한 쓰일 것이며 후원자의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18조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로번호 7608162

계좌번호 (예금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국민은행 835-02-0114-768, 497801-96-200273 우리은행 428-04-103943

하나은행 757-810001-08405 외환은행 170-22-00710-6



손으로보는세상 2017년 7월 204호

발행일 2017년 7월 15일 발행처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발행인 이병돈 편집 김민지

주소 07236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22(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601호

T 02.799.1043 F 02.6925.1117

홈페이지 www.kbuwel.or.kr 한글도메인 시각장애인.kr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kr

디자인 한국엠디 02.867.1921 캘리 모노D